오륙도 칼럼

박영근
전 남구의회 의장
전 초등학교 교장

정치의 품격을 다시 생각하며

정치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많아졌다. 공자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 하여 정치는 본래 '바름(正)'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또 "자솔이정 숙감부정(子帥以正 孰敢不正)"이라며, 앞에 서는 사람이 바르게 서면 공동체 역시 자연스럽게 바르게 된다고 했다. 수천 년 전의 말이지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지방정치에서 활동하던 날들에도 늘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말이었다. 아이들은 교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따라 한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지도자의 태도와 말은 지역의 분위기를 만들고, 주민들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교사로서의 마음가짐 그대로 정치를 대하려 했다. 정직하고 솔직하며, 책임을 피하지 않는 태도, 정치는 아이들 앞에서 하는 수업처럼 해야 한다는 믿음 말이다.

2000년대 후반을 전후해 지방정치에 발을 디디면서 정치가 왜 늘 무겁고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교단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자연스레 익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일'은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다. 주민 한 사람의 작은 민원도 그분에게는 절박한 삶의 문제였고, 정치는 바로 그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늘 생각했다. 정치란 결국 논리나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이며,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보다 더 주민의 일상과 가까운 만큼 더 진실해야 한다고.

물론 과거의 정치가 언제나 고결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치열했고, 때로는 거칠었으며, 서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고집도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금도는 있었다. 사실이 아닌 말을 쉽게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근거 없는 의혹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여겨졌다. 교사 시절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나는 정치에 와서도 그 원칙을 굳게 지키려 했다. 주민의 신뢰는 결국 진심과 성실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지역을 걸어다니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나의 정책을 두고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는 비슷한 현수막이 거리마다 걸려 있다. 흐릿하게 새겨진 '상(賞)' 글씨, 작게 숨겨 둔 '축(祝)' 문구는 법적 해석의 틈을 교묘히 피하려는 장치라고들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얄팍한 장치가 정치의 속내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듯하다. 정치선거법의 악용이라 해야 할지, 이용이라 해야 할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정치적 철학이나 방향성 없이 '치적이 될 만하면 된다'는 태도가 만연해 보인다는 점이다. 어떤 현수막은 우리 구의 일과 전혀 무관한 사안을 마치 연결된 듯 걸어두고, 어떤 것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문장을 흘려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한다. "일단 걸고 보자,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태도는 정치가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가 이렇게 흘러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가슴 속에 오래 머문다.

정치는 교사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자리다. 교사는 아이들의 인생 초반을 책임지고, 정치는 지역 주민의 하루하루를 책임진다. 교사는 거짓을 말할 수 없듯, 정치도 주민 앞에서 허위와 과장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오해로 다투면 나는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게 했고, 서로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했다.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도 바로 그 태도라고 믿는다. 말의 무게를 아는 자세, 사실을 확인하려는 태도, 공동체를 이어가려는 진심 말이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품격 있는 장면은 늘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 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서도 한 대표가 "국민이 불편하다면 정치가 한발 물러서야 한다"며 상대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 일은 지금도 회자된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삶 앞에서는 체면을 내려놓고 합의를 이루어낸 모습이었다. 누가 공을 차지하느냐보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치의 원래 모습이었다. 정치가 품격을 잃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귀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어렵게 답하지 않는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중심에 두는 마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자라듯, 정치도 신뢰를 바탕으로 자란다. 그 신뢰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작은 진심에서 시작된다. 내 말의 무게를 알고, 사실을 확인하며,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에서 정치의 본질은 다시 살아난다.

정치는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정치가 남기는 마지막 흔적은 말이 아니라 사람이고, 약속이 아니라 마음이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의 목소리가 더 컸는지는 잊히지만, 누가 진심으로 지역을 위해 일했는지는 주민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다. 그 기억이 쌓여 공동체의 신뢰가 되고, 신뢰가 모여 지역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오늘 우리의 정치가 확인되지 않은 말과 현수막 몇 장에 흔들리는 듯 보일 때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정치가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정직한 말, 사실 위에서의 논의, 주민을 향한 흔들림 없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살아 있는 정치라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치의 품격은 요란한 주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책임 위에 천천히 쌓여가는 것이다. 바른 마음으로 임하면 바른 변화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교단에서 배웠듯, 정치도 결국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는 삶의 질로 바뀐 의식주 개념

한방칼럼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이었다. 추위를 막기 위한 옷, 허기를 달래기 위한 음식, 몸을 뉘일 최소한의 공간. 이 세 가지가 삶의 안정성을 가르는 기준이었고, 사회적 발전 역시 이 기본 요소를 얼마나 넉넉히 갖추느냐에 따라 평가되던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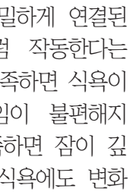
그러나 현대의 의식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재편되었다. 옷은 생존을 위한 보호막이 아니라 신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운동'의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음식 역시 배를 채우는 수단에서 벗어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기능을 최적화하는 '영양 전략'이 되었다. 집 또한 비바람을 피하는 주거 공간에서, 이제는 '수면'의 질을 결정하고 회복을 설계하는 핵심 환경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보면 현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새로운 의식주는 결국 "잠·식사·운동"이다. 과거의 의식주가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이었다면, 현대의 이 세 요소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관리항목이 되었다. 하루 수면의 질이 다음 날의 감정·면역·집중력을 결정하고, 음식의 선택은 장내 미생물과 호르몬 균형을 통해 기분과 대사를 조절하며,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넘어 뇌 기능과 노화 속도까지 바꾼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각각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회로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이 흔들리고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운동이 부족하면 잠이 깊어지지 않으며 식욕에도 변화가 생기고, 잘못된 식사는 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유발해 활동성을 떨어뜨린다. 결국 이 회로를 균형 있게 돌리는 능력이야말로 현대인이 갖춰야 할 생존 기술이다.

필자는 그동안 호흡, 운동, 식사, 수면 등에 대해 간단한 글을 써 왔다. 이미 읽어 온 독자라면 오늘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을 느끼실 것이다. 건강은 특별한 처방이나 복잡한 기법보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선택의 누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매일의 생활에서 기혈을 흐르게 하고, 장부를 쉬게 하며, 신체 리듬을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야말로 현대적 의미의 양생이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기본이 갖춰진 세상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더 명료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단순하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



공태욱
생생한의원 원장

독자의 소리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와 지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실 ☎607-4077, 1225honey@korea.kr

■ 독자칼럼

카페로 변신한 큰고개쉼터, 감사하고 반가워

용호동 장자산의 해발 225m 정상에서 남쪽(오륙도 방향)으로 내려오면 평평하고 너른 터가 하나 나오는데 큰고개쉼터이다. 장자산의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큰고개쉼터는 옛날 농경시대에 분개사람들이 장자산 둘레에서 땔감이나 해안 쪽 박골새, 농바위 등에서 담치, 굴, 돌미역 등 따서 지게에 지고 가다 힘에 부치면 잠시 짐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던 곳이다. 지금도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 해안 절벽을 걸어 올라와 쉬곤 한다. 옛날 동쪽부락(현 용호3동)에서 자란 필자는 여름방학이 되면 동무들과 박골새, 농바위 부근에서 채집한 담치나 굴을 냄비에 끓여 먹었던 아련한 추억이 있다. 바닷가에서 실컷 놀다가 비탈길 걸어 올라와 큰고개에서 쉬었다가 집으로 간 기억이 많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큰고개는 장자산의 명당 같은 곳이다. 초여름밤 반딧불이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장자산의 명당임에도 불구하고 큰고개쉼터가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 같아 늘 안타까웠는데 얼마전에 좋은 소식이 생겼다. 남구청이 큰고개쉼터를 정원형 쉼터로 새단장한 것이다. 기존의 낡은 쉼터를 재정비해 정원형 화단을 조성하고 주민과 외지 관광객을 위한 카페형 휴게쉼터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큰고개를 쉼터다운 쉼터로 만들어 준 남구청의 노고에 주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린다.

최대복(용호향우회 고문)

일확천금 안타까운 '대박 증후군'의 시대

사람들 사이에 꽤 오래도록 유행하는 고질병이 있다. 이름하여 '대박 증후군'. 이 병에 걸리면 증상은 뚜렷하다. 로또 번호만 알면 당장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날 태세. 주식이든 코인이든, 한 방만 터지면 인생이 바뀔 거라 믿으며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본다. 지금의 삶은 예고편일 뿐, 진짜 인생은 대박이 터진 뒤에나 시작된다고 여긴다.

거리엔 '일확천금', '단돈 1만 원으로 부자 되기' 같은 문구가 넘쳐난다. 마법의 주문처럼 사람들은 그 말을 곱씹고 눈빛을 번뜩인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20대에 10억 벌기', '퇴사하고 월 천만 원' 같은 영상을 재생산한다.

회사의 동료 한 사람도 그런 증후군의 전형이었다. 성실한 회사원이었지만,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월 1000만원 버는 법' 영상 하나에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두 달 뒤, 그는 카페 구석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빌어먹을 NFT, 다시는 안 해."

1등 당첨 확률은 벼락 맞고도 살아남는 수준인데도 사람들은 그 확률을 기꺼이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한 방'이 아니라, '한결같음'일지 모른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마음. 인생은 대박을 좇는 허망한 분주함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빚어지는 멋진 작품이 아닐까.

김동석(대연동)

겨울 나그네

최인숙

바람가시에 업혀오는
세찬바람
잠시 머물다가
가만 가만 숨죽여
햇살의 수액을 마시며
유리창에 핀
성애를 손바닥으로 밀어 닦는다
겨울은
나에게 숨어 있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오늘은
한가한 오후의 시간을 기다리고
나목의 묵은 향기로 온몸을 감싸고
도시의 새벽을 깨우며
시의 잎사귀를 걸고 싶을 때
핸드드립 커피의 구수한 향기를
나의 오장육부에 먼저 바른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고용24)와 연계 〈11월 25일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한국은행 부산본부 (장애인만 채용)	문현동	사무보조원 (공공기관)	1명	~ 채용시	시급 10,030원	640-9816
국립부경대학교	대연동	사무보조원 (일반사업체)	1명		연봉 29,910,200원	629-5696
㈜영풍물류	대연동	중대형 화물차 운전원	1명		월급 2,900,000원~3,000,000원	644-1495
장원석치과의원	대연동	치과위생사	1명		월급 2,100,000원	612-0012
남구 장애인복지관	대연동	사회복지사	2명		월급 2,300,000원	070-4903-0172
새라새요양병원	감만동	병원급식조리사	1명		월급 2,350,000원~2,400,000원	070-4949-9926
지구건설 주식회사	용호동	건축시공기술자	1명		연봉 50,000,000원~60,000,000원	313-2446
㈜커리어텍	문현동	삼성중공업 사무원	1명		월급 3,106,000원	02-2183-3668
주식회사 성진트레이딩	감만동	선장 (선박운항유 공급)	1명		연봉 40,000,000원	070-4616-0693
21센추리 시티관리단	대연동	총괄재난 관리자	1명		월급 3,100,000원	610-0120

유엔남구 일드림센터 ☎607-4347~8 Fax.607-4349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는 "일자리" 입니다
구인·구직 등록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산따라 물따라 12월 산행을 떠나요

산악회	산행일시	산행장소	연락처
용신산악회	12월14일(일)	진안 마이산	010-4934-1016
산이좋아산악회	12월28일(일)	전남 무등산	010-5699-5437

※ 산악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산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명대 반려동물 일일놀이터 운영

동명대학교에서 반려인과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이 있는 반려동물 일일놀이터'를 11월 22일~12월 11일 14:00~17:00 대학 내 반려동물놀이터 '동숲'에서 개최한다.

동명대 반려동물보건학과(동명대라이즈사업단)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11월 22일 반려동물 운동회 △11월 29일 체험프로그램 △12월 11일 슬기로운 반려생활과 어질리티놀이 문화교육, 상담 및 교정교육 등이 무료로 진행된다. 동명대학교 ☎629-0213, 2225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유료광고 접수 4071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